

학교텃밭 활용수업 '교육적 효과 높다'

교사 중심 운영으로 추가적인 업무 부담·텃밭관리 전문지식 부족은 개선할 사항

농촌진흥청은 최근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 학교 텃밭정원 조성·운영 및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동연구기관인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교육청 등의 협조를 받아 서울, 전북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 2016년 2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1차 325학교, 2차 117학교가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학교텃밭을 운영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정규수업·특별활동 등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학교텃밭을 활용한 수업의 교

육적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텃밭을 활용한 교육은 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시간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실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업은 월 2회~3회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수업횟수를 늘리기를 희망했다.

학교텃밭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에 대한 답변은 '매우 효과적이다' 67%, '효과적이다' 32%로, 교육효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학교텃밭은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텃밭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텃밭관리를 위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텃밭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은 '휴일이나 방학 때 텃밭관리', '병해충 관리', '전문지식 부족' 등이었다.

텃밭관리에 대한 정보는 주로 주변으로부터의 자문, 인터넷 등을 통해 얻고 있었다.

'학교텃밭'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필요한 교육내용은 '텃밭 디자인', '병해충 관리를 포함한 재배기술', '연중 관리방법' 등이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학교텃밭 운영자가 지속적으로 텃밭을 운영하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텃밭을 운영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텃밭 교사직무연

수를 실시한다. 오는 28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학교텃밭 디자인 및 식재실습, 병해충 관리, 학교텃밭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지난해엔 2기에 걸쳐 2일간 연수를 진행했는데 종합만족도는 4.67점(5점 만점), 현업수행 도움 정도는 4.78점, 강의 만족도는 4.94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농촌진흥청 장운아 농업연구사는 "이번 연수가 학교텃밭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교텃밭 연수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학교텃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스타 소상공인 육성 대상자 모집

전북도-경진원, 5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사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지역 대표 공개오디션 사업인 스타 소상공인 육성 대상자를 모집한다.

스타소상공인 선발 육성 사업은 지역 내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 우수 소상공인을 공개오디션을 통해 성공모델로 육성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성공창업 성공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PT심사를 거쳐 6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3차 TV 공개오디션을 통해 최종 3개 업체를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3개 업체의 경우, R&D, 마케팅, 해외진출, 시설 개보수, 시스템 개선 등의 경영지원금 최대 2,0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공개오디션에 진출한 6업체에게도 TV홍보와 컨설팅, 추가로 3,000만원 한도의 자금융자(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를 저리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풀뿌리

와도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생존경쟁력을 주고자 전북도와 경진원이 매년 아심차게 실시하는 지원사업으로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경진원 관계자는 "이번 스타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성공창업 성공경영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영개선 마인드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신청기간은 5월 11일까지이며, 창업 1년이상 전북 소재 소상공업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홈페이지(www.jobssos.or.kr)에서 신청서 다운 후 방문 접수, 우편접수(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본부), 이메일(westhope@jbs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소상공인 팀 (063) 717-1302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식품 해외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적극 펼친다

생진원, 박람회 참가지원·현지 시장개척활동 나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발효식품엑스포 추진팀이 전북식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다.

생진원은 전북 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북도 수출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와 연계해 상시 수출상담회, 북경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디자인 개발지원, 현지 시장개척활동 등 전북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 3월 24일에 미국의 SW 그린라이프사를 초청해 오는 5월 4-13

일까지 10일간 뉴욕에서 전북농식품 홍보관측행사 개최를 확정, 효송그린푸드, 순창장본가 등 10개 업체 제품 선적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에는 중국의 (주) 21세기 베이비월드사를 초청해 유아용 식품 품목에 대한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싱가포르의 LJ 글로벌사를 초청해 건강기능식품 품목에 대한 상담회를 진행했고, 18-19일에는 대만의 Gent Union사를 초청해 강동우에익 등 8개사가 참여해 수출 상담회를 진

행하고, 8월 경 대만 현지 전북 식품 특관 프로모션 행사를 확정했다.

현재 상담회에 참여한 전북 식품업체 상담수가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5월에는 KOTRA와 연계한 대규모 바이어 상담회가 예정돼 있으며, 올해 안에 약 40여회의 상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어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최대한 많은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만 Gent Union사의 양민호 대표는 "기존 거래하고 있는 한국식품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상담회를 통해 대만소비자들의 기호를 잘 고려한 전북만의 매력적인 상품들을 발굴하게 돼 기쁘다"며 "차후 현지에서 진행할 전북식품 특관 프로모션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전라북도 상품들을 발굴해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 우수바이어 발굴, 현지 특별 프로모션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북 식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이벤트 팀 운영 서비스 만족 향상 실천

이스타항공이 이벤트 팀 운영을 통해 고객 추억제공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21일 오후 분사 6층에서 'ET(이벤트팀) GO!' 라는 슬로건으로 ET팀 선발 오디션을 진행했다.

올해로 5기를 맞은 이벤트팀 오디션은 50여명의 승무원들이 지원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디션에서 선발된 10여명의 인원은 5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 6월부터 이벤트 비행에 나선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가내이벤트팀을 구성해 국제선 방콕 노선 등의

중장거리 노선에서 고객들에게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이벤트팀은 승무원들의 재능과 끼에 맞는 각각의 분야에 맞춰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이벤트팀은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호응을 유도하는 댄스팀,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카테일쇼를 진행하는 카테일팀, 재미있는 퀴즈와 게임을 진행하는 레크레이션 팀, 그리고 이벤트 진행에 있어 필요한 디자인을 제작하는 아트팀까지 총 4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공매·담보물건 경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22억원 규모 총26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남원시 죽향동 소재 근린생활시설과 완주군 삼례읍 소재 창고, 익산시 부송동 소재 아파트 등이 있다.

공매 참여 시 입찰자 현황 등 권리

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27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우정청 달팽이장터, 합동 토론회 개최

전북우정청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남 완도에서 생산농가 10여명과 온라인 쇼핑물 MD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팽이장터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우수농산물 판로 활성화를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우정청의 달팽이장터 활성화 방안과 성공사례 발표, eBay 코리아 이한진 과장의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컨설팅 및 전남우정청 윤준용 MD의 전북달팽이장터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한샘우렁이 김호진 대

표는 "그동안 요식업체에만 판매하고 있었는데 달팽이장터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됐고, 지난달에는 하루 3,000박스가 접수돼 매출이 톱톡히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 전북지역 농가들이 농산물 판매에 더 큰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청장은 "우체국 달팽이장터는 오픈마켓에 접근이 어려운 생산자를 대신해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 지난해 4월 개설한 이후 17억여원을 매출을 올렸으며 "전북의 농가소득 증대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